

졸속·패권·분열·개혁 실종...역대 최악 '막장 공천'

공천 마무리 여야 본격 선거체제

4·13 총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0대 국회 역대 최악이 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여야 모두 시간에 쫓기는 상황에서 후보 공천을 진행함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제시하는데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각 당의 공천 심사 일정 자체가 뒤로 밀렸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야 모두 당내의 이해관계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미래 비전을 제시할 후보 공천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여권은 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계와 비주류인 비박(비박근혜)계가 공천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면서 '막장 공천'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야권은 친노(친노무현)와 비노(비노무현) 간 계파 갈등이 폭발, 분당이 현실화되면서 정치적 혼란이 가중돼 차분하게 공천할 물리적 시간 자체가 부족했다.

이에 따라, 여야 모두 경쟁적으로 다짐했던 '개혁 공천'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막판으로 갈수록 계파 이익만 챙기는 '권력형 공천'에 몰두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새누리당은 친박계가 비박계와 친이계 인사들을 숙청했다는 평가다. 역대 최악의 공천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공천 막판 적지 않은 친박 후보들이 탈락하는 등 민심의 역풍 조짐도 나타났다. 특히, 유승민 의원의 공천 여부에 따라 새누리당의 공천 파동은 더욱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공천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당의 수장이 문재인 전 대표에서 김종인 대표로 교체됐지만, 오랜 숙제였던 계파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친노 체제에서 사실상 친문 체제로 전환된 것일 뿐이라는 냉소적 반응도 나오고 있다. 특히, 김 대표의 셀프 비례대표 공천 파

선거구 획정 늦어져 심사 부실

새누리 비박·친이계 몰살

야권도 계파 쟁기기 공천 충돌

문과 청년비례 후보 졸속 심사 파동 등이 겹치면서 혁신 공천은 실종됐다. 지지적이다.

국민의당도 당의 체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서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안철수, 김한길, 천정배, 박주선 등 각 정치 세력이 합쳐진 신생 정당이라는 점에서 취약점을 나타냈다. 실제로 더민주 김종인 대표가 제기한 '야권 통합론'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당이 분열 위기에 빠지기도 했다. 국민의당이 광주 지역에 내놓은 숙의배심원제 카드는 현역의 기록권을 넘지 못했다. 여기에 허술한 시행 세칙 등으로 광주 동남갑과 서구갑 후보 공천에서 각종 논란을 낳기도 했다.

공천 탈락 후보 지지자들이 지도부 회의에 난입하는가 하면 법적 대응과 이의 제기가 잇따랐고 결국 김종현 선관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처럼 공천 파동에 따라 여야 각당은 제대로 된 총선 공약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체 선거의 실종이 과거 그 어느때보다 심각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이 같은 여야의 부실 공천에 따라 20대 국회의 수준은 사상 최악이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권의 오만과 야권의 분열 등으로 여야가 심도있는 공천을 진행하지 못하면서 20대 국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표로 심판해야 하나 그 어느 정당도 민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역대 최저 투표율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최권열기자 cki@kwangju.co.kr



공천 내홍...몸 피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22일 오후 마포구 당사에서 20대 총선 공천배제에 강하게 항의하는 예비후보를 피해 황급히 당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비례대표 공천 긴장 고조

安-千 측근 놓고 물밑 줄다리기...전윤철 포함 관심

더불어민주당이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셀프 비례대표 공천'으로 심각한 후폭풍에 휩싸인 가운데 비례대표 의원 공천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당에도 미묘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단, 당내에서는 비례대표 후보 1, 2순위에 과학기술인을 발탁해 배치하고 3순위에 안보 전문가를 배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 전문가로는 전남 신안 출신으로, 4성 장군 출신인 이성출 안보특별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과학기술인 2명을 발탁하지 못할 경우 1순위에 과학기술인, 2순위에 안보 전문가를 배치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안 대표가 공을 들여 영입한 이상돈 공동 선거대책위원장도 당선 안정권에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 대표측 박선숙 사무총장과 천 대표측 박주현 최고위원도 당내 세력 구도와 여성으로서 비교 우위를 감안할 때 3·5번, 또는 5·7번에 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당선 기대 최대치로 거론되는 8석까지 여분이 2, 3석에 불과해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전윤철 공천관리위원장의 비례대표 진출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당내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찬성 측에서는 전 위원장이 경제 전문가인데다 당에 기여한 점도 크다는 점에서 비례대표 상위 순위에 올려 놓아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 측에서는 더민주가 비대위 김종인 대표의 셀프 비례대표 공천으로 심각한 후폭풍에 휩싸인만큼 전윤철 공천관리위원장의 비례대표 진출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위원장의 비례대표 진출 여부는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 측과 정전배 공동대표 측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두고 치열한 물밑 줄다리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 공천 파동은 총선을 20일 앞두고 국민의당에 치명적 약제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두 대표가 23일 최고위에 앞서 절충점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1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하면 비례대표 후보로 4~5명, 15% 득표를 할 경우 7~8명까지 당선 기대권에 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민의당 순천 구희승·전주시을 장세환 공천

이윤석 의원 더민주 탈당 국민의당 입당할 듯

국민의당은 22일 오는 20대 총선에서 순천에 구희승 변호사, 전북 전주시을에 장세환 전 국회의원을 각각 공천하기로 했다. 또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에는 임정엽 전 원주군수를 공천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전국 3개 선거구에서 안심번호 여론조사 방식으로 치러진 이 같은 4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이날까지 전체 253개 지역구 가운데 161개의 공천을 마쳤다. 여기에 서울 관악을 등 경선 결과 발표를 앞둔 15개 선거구를 합치면 이번 총선에서 모두 176개 지역에 후보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77개 미공천 지역구의 경우 후보를 계속 물색하고는 있으나 후보등록까지 시간이 촉박해 추가 후보 공천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윤석(무안·신안)의

원이 국민의당으로 입당하기 위해 더민주를 탈당했다. 더민주 전남도당은 이날 "오늘 오후 이 의원이 대리인을 통해 더민주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탈당 사유에 대해서는 '신상의 이유'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며, 전남도당은 중앙당에 이 의원의 탈당계를 팩스를 통해 전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실시된 더민주 영암·무안·신안 선거구 후보 경선에서 서삼석 전 무안군수가 패배했다. 이 의원은 조만간 국민의당에 입당해 영암·무안·신안의 당 소속 후보인 박준영 전 전남지사를 지원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무안 출신 현역 의원의 당적 변경으로 영암·무안·신안 총선은 경쟁구도에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최권열기자 cki@kwangju.co.kr

더민주, 여수갑 불출마 김성곤 의원 서울 강남갑에 전략공천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서울 강남갑에 김성곤 당 전략공천위원장을 전략공천하기로 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강남갑 지역은 더민주에 광장히 어려운 지역이다. 당을 위한 협치 출마"라며 "4선인 김 의원이 직접 나가 강남의 선거판을 끌고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명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전남 여수갑의 현역 의원이다. 4선 의원으로 중앙위원회 의장도 역임하고 있는 중진이다. 그는 지난해 자신의 지역구에 대한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를 신청했지만, "당이 원하는 협치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박지경기자 jkpark@

여행길의 즐거운 동반자!!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1층
Tel. (062)234-3222 Fax. (062)234-3141

NAVER **조이투어**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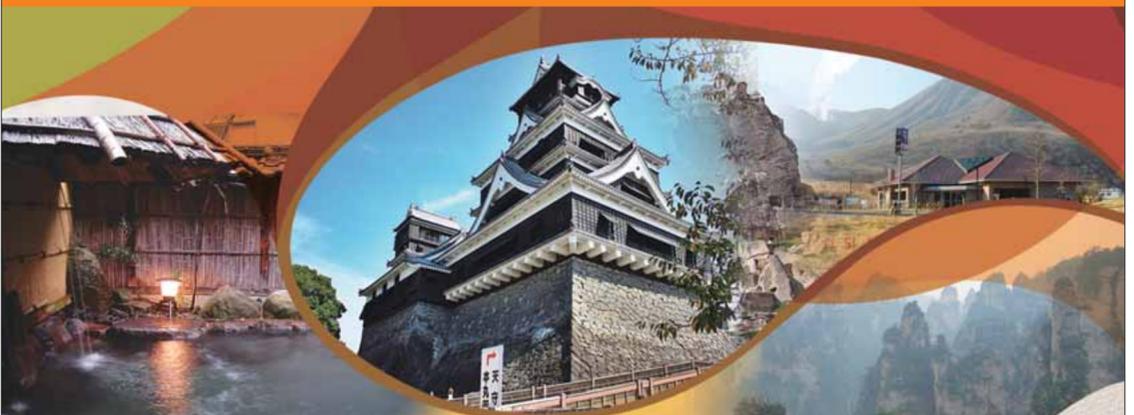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http://www.joytour.kr



대표이사 최관환



카메리아로 떠나는 일본 후쿠오카 벚꽃+온천 여행~!!

출발일 3/29, 4/3, 4/10, 4/12, 4/18, 4/24, 5/8, 5/14, 5/22, 5/29

- ▶ 가족과 함께 떠나는 아마다세 고급 팬션 온천여행 4일 ₩499,000~
- ▶ [품격] 전통료칸 온천 여행 4일 ₩559,000~
- ▶ [고품격] 전통료칸 온천 여행 + 후쿠오카 특급 4일 ₩599,000~

포함 : 선박왕복, 유류세, 부두세, 일정표상의 일정, 입장료, 가이드비, 국내수송비
불포함 : 여권 및 개인경비, 싱글차지

무안공항에서 떠나는 장가계 전세기!!

▶출발일 3월 9일 ~ 6월 1일까지 매주 수, 토요일

신속	무안-장가계	3박5일 ₩ 699,000
		4박6일 ₩ 699,000
불포함 : 개인경비, 싱글차지, 가이드&기사경비(50%), 단체비자(₩35,000)		
편의	무안-장가계	3박5일 ₩1,050,000
		4박6일 ₩1,090,000
불포함 : 개인경비, 싱글차지		
고품격	무안-장가계	3박5일 ₩1,150,000
		4박6일 ₩1,190,000
불포함 : 개인경비, 싱글차지		

무안-상해, 황산, 항주 특개!!

▶3/30 단 하루!! 무안-상해, 황산, 항주 4일 ₩599,000

▶3/28 단 하루!! 무안-상해, 황산, 항주 5일 ₩649,000

포함 : 특전 1, 전일정 중독급호텔사용
2, 현지 특식제공 [동파육, 사천요리, 삼겹살등 한식]
3, 발마사지포함 4, 항주서호유람선, 송성가무소 포함
5, 기사/가이드팁 포함
불포함 : 매니팅 및 기타 개인비용, 중국단체비자 (₩35,000)

무안에서 떠나는 중국여행~!!

- ▶북경, 만리장성 4일 ₩650,000~ ※화요일 출발
- ▶북경, 고북수진 4일 ₩750,000~ ※화요일 출발
- ▶면산, 태항대협곡 5일 ₩1,150,000~ ※금요일 출발

불포함 : 개인경비, 매니팅, 선택관광

인천에서 떠나는 중국의 숨은보석 산동성!!

▶산동성(치박, 제산, 제남) 4일 ₩699,000~

특전 : 광주-인천 왕복 수송 포함!!
불포함 : 개인경비, 매니팅, 선택관광, 광주-인천 이동 중 식사

- ▶[항공] 광주-제주도 3일 ₩299,000~
불포함 : 기사&가이드팁(₩10,000), 현지직불관광, 석식2회
- ▶[선박] 목포-제주도 3일 ₩179,000~
불포함 : 기사&가이드팁(₩10,000), 현지직불관광, 석식2회
- ▶[선박] 장흥-제주도 3일 ₩209,000~
불포함 : 기사&가이드팁(₩10,000), 현지직불관광, 석식2회
- ▶광주-울릉도 3일 ₩345,000~
- ▶목포-홍도, 흑산도 2일 ₩145,000~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2003-1호]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공통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여행상품1명, 국내상품 5만엔),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열버스/전지역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공제 가입업체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경비없음(단, 기사/가이드봉사료, 선택관광, 각종 비비용 별도) ▶최소 출발인원 : 상품에 따라 다름